

# 조선대 하키 4연패 '전국 최강'

협회장기 한체대 꺾고 우승

이준화 '최우수선수상' 영예

이기찬·전병진은 득점상

조선대가 제2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조선대는 지난 15일 경북성주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대부 결승에서 단단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박일호(2년)의 선제골과 이기찬(4년)의 쐐기골에 힘입어 한국체대를 2-1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선대는 지난 2007년부터 4년 연속 대회桂권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임을 과시했다.

올들어 조선대가 이렇게 첫 출전대회부터 정상질주를 펼치며 올시즌 대활약을 예고했다. 이날 경기에서 조선대는 라이벌 한국체대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전반은 양팀 모두 수비에 충실히 득점 없이 끝났다.

첫 골은 조선대의 몫이었다. 후반 3분께 조선대 김규호(4년)가 오른쪽을 돌파해 올린 볼을 박일호가 펠드볼로 성공시켜 기선을 제압했다. 첫 골이 터진지 불과 7분



조선대 하키팀이 지난 15일 제2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선수권에서 우승한 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후반 후반 10분에 페널티 코너를 이기찬이 마무리해 확실히 승부에 빼기를 박았다. 후반 25분 상대 양지훈에 실점 당한 조선대는 더 이상 추격의 고삐를 허용하지 않고 2-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13일 예선에서 순천향대를 4-3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조선대는 강원대를 4-1로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조선대 주장 이준화(4년)는 센터백으로서 상대 공격을 봉쇄하는데 일등공신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의 영예도 안았다. 조선대는 또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3골씩을 기록한 이기찬과 전병진이 득점상을, 김종이 감독이 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기보배 생애 첫 '태극마크' 명중

<광주시청>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1위



무 기쁘다"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출전 대회에서 컨디션 난조에 빠지면 한없이 흔들렸었는데, 이를 보완해 빨리 정상 기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인드컨트롤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박재순 감독은 "기보배는 긍정적인 자세로 다른 선수들 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데 큰 장점이다"면서 "선천적으로 양궁에 적합한 체형을 지니고 있고 슛팅도 빨라 정신적인 흔들림만 없다면 세계적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기보배는 포함한 최종 선발자 8명은 태릉선수촌에 입촌, 오는 6월까지 세차례의 자체선발전을 갖는 등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자 4명의 명단에 오르기 위해 막판 경쟁을 펼치게 된다.

기보배는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뽑혀 너

장애학생체전 광주선수단 출정식

8개종목 110명...종합3위 목표

제4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이 17일 오전 11시 월드컵경기장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갖는다.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광주는 8개 종목에 1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총무체육관 등 대전시내 11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등부 13개 종목에 220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지난해 금 16개 은 20개 동 16개로 종합 4위를 차지한 광주는 올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학생체전은 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인선수 발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개회식은 17일 오후 3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남성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제품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BS · KBC 「사람세상 방영」

【가발】 50 만원~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스킬과 망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여성모모(剃毛)화 헌통화로OK!

※회상 두피탈출증 기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E-mail:daesangabal.co.kr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 수 채 011-600-9955



'2010 울산컵 PWA전세계원드서핑대회'가 16일 울산시 울주군 진해해수욕장 일바다에서 열렸다. 참가 선수들이 바다 위를 시원스레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그레코로만형 金 3

亞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한국 레슬링 대표팀이 2010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에서 첫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경량급 '기대주' 최규진(조폐공사)은 지난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55kg급 결승에서 라센데르 쿠마르(인도)를 2-1로 꺾었다.

최규진은 쿠마르에게 1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2-3세트를 잇달아 따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규진이 물꼬를 트면서 오랜만에 금메달이 돌아왔다.

66kg급에 출전한 김현우(경남대)가 결승에서 엔세카노프 아이벡(카자흐스탄)을 2-0으로 꺾고 우승했고, 84kg급의 이세열(경성대)도 사이카와 노리카쓰(일본)를 2-1로 물리치고 정상에 섰다. /연합뉴스

## '숙명의 라이벌' 페더러-나달

마드리드오픈테니스 결승 격돌

'숙명의 라이벌'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와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이 1년 만에 결승 맞대결을 벌인다.

'테니스 황제' 페더러는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치러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드리드오픈(총상금 283만 5000유로·40억원) 준결승에서 다비드 페레르(12위·스페인)를 2-1로 꺾었다.

'클레이코트 황제' 나달 역시 같은 날 열린 경기에서 니콜라스 알마고로(35위·스페인)를 2-1(4-6 6-2 6-2)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이로써 둘은 지난해 같은 대회 결승전 이후 1년 만에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나달이 상대 전적에서 13승7패로 앞서는데다 클레이코트에서는 9승2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만큼 나달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 /연합뉴스

은 훈련을 소화하라는 것은 마치 100m 단거리 선수에게 마리톤 선수와 같은 훈련을 하라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늘어난 훈련량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대표 선수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선수는 "선수에게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훈련량만 강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안병국 대표팀 코치는 일부 고참 선수들이 갑자기 늘어난 훈련량에 불만을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안 코치는 "지금은 체력을 끌어올리는 단계라 훈련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단계가 지나면 기술 훈련 등 다른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지옥훈련 도움 안돼" VS "훈련의 한 단계일 뿐"

### 수영대표팀 내홍... 일부 선수 퇴촌도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대표팀의 훈련 방식에 불만을 품고 태릉선수촌에서 제발로 걸어나가거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대표선수들의 입에서는 "태릉선수촌을 나가 밖에서 훈련하는 것이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때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지난 2일 동아수영대회가 끝나고서 대표팀 경영 코치진은 기존 새벽과 오후 훈련에 더해

오전과 야간 훈련을 추가했다.

오전과 야간 훈련이 늘어나면서 대표팀 훈련은 오전 5시 반부터 저녁까지 종 일 이어지게 됐다.

최고급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은 동아 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런 코치진의 훈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수촌을 나갔다.

이 선수는 "나는 단거리 종목 선수인데다가 나이도 많아 훈련 끝지 않게 휴식도 아주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선수와 똑같

##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 가치

모두가 꿈꾸는 학별한 선택,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습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 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희생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하 60대, 지상 12대

◆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정/업/종 은행/보험/식당/미스트루드/기획  
커뮤니케이션/중증병원/센트럴파크/파이낸셜 등

◆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정/업/종 병의원/민의원/치과/미용, 피부과/카페/민족당/당구장

◆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형성  
권/정/업/종 입사선물학원/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체육관/기타학원

◆ 대단위 유동 인구와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정/업/종 스포츠센터/미래리스토랑/스크린골프/액원/기타

◆ 폴라리스 분양/임대/분양/임대/분양/임대 062) 674-4900

###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문의/전화 www.gred.kr • 부원장 강동욱 번호사 062-233-3119  
• 시무국 김병철 062-233-3119